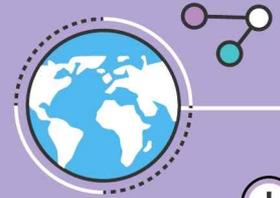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Global Value Chain(GVC) Insight



금주의 GVC Insight



최신 GVC 해외 이슈

【가스, 독일·러시아】 독일, 가스 비상공급계획
경보 단계를 2단계로 상향 조정

【제재, EU·러시아】 對러 제재, 우크라이나 지원이
인플레이션의 부메랑으로 되돌아온 EU

【금융, 러시아】 러시아 104년만에 첫 외채 디폴트
→ 세계 경제 파장은 제한적

【국제정치, EU·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EU 가입
후보국 지위 획득

【금속, 세계】 세계 금속가격, 침체 우려에 '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하락 가능성

【코로나, 중국】 6.27일 베이징·상하이 제로 코로나
(신규확진자=0) 달성

【인권, 미국·중국】 美, 중국 신장(新疆)산 제품 수입
전면 금지 조치

【통상, 미국·대만】 美, 대만과 '21세기 무역이니셔티브'
경제협약체 가동

【인프라, G7】 G7, 전세계 인프라 건설에 770조원
투자 → 中 일대일로에 반격

【에너지, 미국】 미 바이든 대통령, 의회에 '연방
유류세 한시적 면제' 요청



GVC 뉴스 더하기

- ① EU 회원국 등 석탄 수요 증가, 기후 정책 추진
후퇴 우려
- ② 러-우 사태에 따른 ESG 투자의 재정의
- ③ 미국의 對中제재에도 성장하는 중국 반도체산업



GVC 전문가

김양팽(산업연구원) - "글로벌 반도체 공급 재편
움직임과 정책적 시사점"



GVC 기초상식

에너지 원자재와 식량 가격의 관계



GVC 돌보기

미국의 對러 수출통제 (미국 수출통제 시리즈 2편)



GVC 소식통

- ① 기업들을 위한 물류 지원 사업 안내
- ② 공급망 관련 상담회 및 포럼 개최 소식



더 찾아보기

'세계사를 바꾼 15번의 무역전쟁'(자오타오·류후이)
책 소개

최신 GVC 해외 이슈

● **【가스, 독일·러시아】 독일, 가스 비상공급계획 경보 단계를 2단계로 상향 조정**

- 러시아가 독일에 대한 가스 공급을 60%나 줄임에 따라, 독일은 지난 6.23일 총 3단계로 이루어진 가스 비상공급계획(emergency gas plan) 경보를 기존 1단계에서 2단계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함
 - 독일의 비상공급계획 경보 단계는 ①조기경보, ②경보, ③비상의 세 단계로 구성 → 가스 비상공급계획 경보 단계가 3단계(비상)로 높아지면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가스 배분제를 시행할 수 있음
- 프랑스 티메르만스 EU 부집행위원장에 따르면 현재까지 EU 27개 회원국 가운데 10개국이 가스 공급 조기경보를 발령했다고 함

출처 : 로이터, 서울경제 등 언론보도 종합

● **【제재, EU·러시아】 對러 제재, 우크라이나 지원이 인플레이션의 부메랑으로 되돌아온 EU**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발발한 전쟁이 닷달 지나가면서 유럽의 단일 대오가 흔들리고 있음. 전쟁發 인플레이션이 경기 침체로 이어지자, 전쟁 종식과 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음. 최근 싱크탱크 유럽외교협회(ECFR)의 조사에 따르면, '전쟁을 최대한 빨리 끝내야 한다'는 응답(35%)이 '러시아를 응징해야 한다'는 답변(22%)을 앞섬
- 현재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는 수세에 몰려 있으며, 對러 에너지 제재가 서방에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음. 유로존의 5월 소비자물가는 8.1%, 미국은 8.6%로 치솟아 모두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함. 반면, 러시아의 루블화 가치는 서방의 對러 제재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7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함

출처 : CNN, 중앙일보 등 언론보도 종합

● **【금융, 러시아】 러시아 104년만에 첫 외채 디폴트 → 세계 경제 파장은 제한적**

- 러시아가 104년만에 채무 불이행(디폴트)에 빠짐. 서방의 對러 제재의 여파로 외화표시 국채에 대한 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못한 것임
 - 6.27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러시아가 전날까지 갚아야 할 외화표시 국채의 이자 1억 달러(약 1,283억원)를 투자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함
- 러시아의 채무 불이행은 1918년 볼셰비키 혁명 당시 볼셰비키가 차르(황제) 체제의 부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지급을 거부한 이후 처음임. 러시아는 1998년 모라토리엄(채무 지급유예)을 선언한 적이 있음. 당시에는 외채가 아닌 루블화 표시 국채를 대상으로 한 것임
- 러시아의 디폴트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경제적인 충격보다는 정치적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음. 러시아 정부도 금번 디폴트는 SWIFT에서 퇴출된 러시아은행들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접근할 수단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발생한 것으로 러시아는 원유·가스 수출로 벌어들이는 외화 자금으로 인해 현재 자금력이 탄탄하고 상환 의지를 갖추고 있는 만큼 진정한 디폴트가 아니라고 설명

출처 : 블룸버그, 매일경제 등 언론보도 종합

● **【국제정치, EU·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EU 가입 후보국 지위 획득**

- 우크라이나와 몰도바가 6.2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EU 가입을 위한 후보국 지위를 부여받음
- 러시아의 침공 직후 EU 가입을 신청한 우크라이나는 정식 회원국이 되기 위해 사법개혁, 부패청산

등 여러 조건을 충족시키는 절차를 밟아야 함.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EU의 결정이 '특별하고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환영을 표시함

- 그러나 EU 정식 가입 절차는 십 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음. 회원국 기준 충족을 위한 패스트트랙은 존재하지 않으며, '13년 EU에 가장 마지막으로 합류한 크로아티아도 가입까지 10년이 소요됨

출처 : 블룸버그 등 언론보도 종합

● 【금속, 세계】 세계 금속가격, 침체 우려에 '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하락 가능성

- 블룸버그통신은 6.26일 세계 경기침체 우려로 구리·주석 등 금속 가격이 '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분기 기준 하락세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
- 산업용 금속 가격 추이를 보여주는 블룸버그 산업용 금속 현물 지수는 이번 분기 들어 26% 하락
 - 실물 경기 흐름의 주요 선행지표인 구리 가격은 이달 들어서만 11% 하락하며 6.24일 런던금속거래소(LME) 기준 톤당 8,122.50 달러로 16개월만에 최저치 기록
 - 주석은 지난주 21% 급락하면서 지난 3월 고점으로부터 50% 이상 하락했으며 니켈은 전주 대비 13% 하락
- 블룸버그는 코로나19 봉쇄 해제 이후 경기 낙관론과 공급망 교란으로 급등했던 금속 가격이 미국의 통화 긴축과 중국의 수요 둔화 우려 등으로 최근 급격하게 하락세로 전환했다고 분석
 - 美 연준이 이달 초 기준금리를 0.75%p 인상한 데 이어, 앞으로도 강도 높은 긴축적 통화정책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경기침체·수요 감소 우려로 이어졌기 때문
- 다만, 금속 재고 부족과 공급 확대의 어려움으로 금속 가격이 앞으로도 유지될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
 - 세계 최대 구리 생산업체인 칠레 국영기업 코델코의 마시모 파체코 이사회 의장은 세계적으로 구리 공급이 부족한 상태임을 고려할 때, 현재 가격 변동은 단기적이며 구리 가격은 앞으로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본다고 밝힘

출처 : 연합뉴스(22.6.27)

● 【코로나, 중국】 6.27일 베이징·상하이 제로 코로나(신규확진자=0) 달성

- 6.27일 0~24시 기준, 중국 본토 신규 확진자 1명(광둥성), 본토 무증상 감염자 21명(안후이, 톈진, 랴오닝, 광둥, 광시)으로 확산세가 완화
- 특히, 4월부터 코로나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도시 봉쇄 및 준봉쇄 조치에 들어갔던 베이징과 상하이의 확산세가 잦아들면서 6.27일 두 도시 모두 제로 코로나를 달성하고 일상회복에 박차
 - 베이징시는 6.27일부터 초·중·고교 등교 재개, 6.25일부터 유니버설 스튜디오 입장인원 제한 조건 하 재오픈
 - 상하이시는 6.29일부터 중위험지역 이외의 일주일 내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는 지역의 식당 내 취식을 허용
- 한편, 6.27일 개최된 베이징시 제13차 대표대회에서 차이치(蔡奇) 당서기는 베이징은 동태적인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힘
- 중국의 코로나 확산세가 완화되면서 국내 여행 산업, 소비 등 중국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
- 한편, 중국 증권일보가 최근 중국 경제 성장률과 관련하여 중국내 경제학자 8인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한 바, 전문가들은 올해 상반기 중국의 GDP 성장률이 3%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재정·통화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여 하반기 경제 회복 속도를 가속화해야 한다고 제언
 - 뤼즈형 웨카이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중국정부의 경제 안정화 정책이 효력을 발휘하며 5월 경제 상황이 회복되고 있는 바, GDP 성장률은 △1분기 4.8%, △2분기 1~2%, △상반기 약 3%, △3~4분기 5%로 V자형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출처 : KOTRA 베이징무역관 中國寶庫(22.6.28), 주중한국대사관 일일경제동향(22.6.27)

● **【인권, 미국·중국】 美, 중국 신장(新疆)산 제품 수입 전면 금지 조치**

- 6.21일 미국 관세청은 중국 신장(新疆)산 제품은 중국 정부가 해당지역에서 강제노동 및 인권침해로 생산되었다고 추정하여 이에 대한 미국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음
- 이와 관련,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의 행위는 전형적인 경제적 협박으로, 마중 양국의 기업과 소비자의 이익을 심각하게 손상시켰고, 글로벌 공급망 안정 및 경제 회복에도 불리하다고 밝힘

출처 : 중국 상무부

● **【통상, 미국·대만】 美, 대만과 '21세기 무역 이니셔티브' 경제협약체 가동**

- 6.27일 세라 비앙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와 덩전중 대만 경제무역협상판공실(OTN) 대표는 '21세기 무역에 관한 미-대만 이니셔티브' 논의를 위한 회의 개최
 - 동 이니셔티브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대만이 참여하지 못해 미국과 대만이 별도로 구성한 협의회
 - 미국과 대만은 무역, 규제 관행, 농업, 반부패, 중소기업, 디지털 무역, 노동 등 분야에서 표준 합의를 위한 협상 로드맵 개발을 논의했다고 밝힘
- 이니셔티브와 관련해, 가오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6월 초 "대만과 다른 나라 간 어떤 형태의 공식적 교류도 항상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음
 -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이니셔티브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고 대만과의 관계가 비공식적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

출처 : 연합뉴스(22.6.27) 등 언론보도 종합

● **【인프라, G7】 G7, 전세계 인프라 건설에 770조원 투자 → 中 일대일로에 반격**

- G7은 중국의 일대일로에 맞서 전세계에 약 6,000억 달러(770조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단행하기로 함. 6.26일 독일 바이에른주 엘마우성에서 개최된 G7 정상회의에서는 글로벌 인프라 투자를 위한 파트너십(PGI)을 공식 출범시키고 '27년까지 개발도상국의 청정에너지 구축, 백신 공급, 첨단통신망 개발 등 광범위한 프로젝트에 투자하기로 함. 미국은 공공과 민간 자본을 활용해 2,000억 달러를 투입할 예정
 -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밝힌 파트너십에는 △아프리카 세네갈 백신 제조 시설 확대, △양골라 태양광에너지 발전소 건설, △루마니아 소형모듈원전(SMR) 배치, △동남아-중동-서유럽 해저 통신 케이블 구축 등 이미 추진 중인 프로젝트들이 다수 포함
- 백악관 당국자들은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일대일로를 '저소득 국가들에 부채의 덫을 파는 모델'이라고 평가절하했는데, 이에 대한 서방측의 대안을 이날 제시한 셈임

출처 : 로이터, 서울경제 등 언론보도 종합

● **【에너지, 미국】 미 바이든 대통령, 의회에 '연방 유류세 한시적 면제' 요청**

-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Federal Gas Tax Holiday)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할 것을 의회에 요청함. 이를 통해 향후 90일간 연방 유류세를 면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도움을 주고, 주 정부에도 자체 유류세 부과를 일시 중단하거나 유사한 구제책을 제공할 것을 촉구
 - 현재 휘발유 1갤런당 18.4센트, 디젤 1갤런당 24.4센트가 연방 유류세로 부과 중이며 AP통신 분석에 따르면 만약 기름값이 갤런당 평균 약 5달러라고 할 경우, 연방 유류세 절감액이 소비자에게 완전히 전가될 수 있다면 약 3.6%의 절약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그러나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한시적 유류세 면제 효과에 대해 부정적 견해가 다수 있어서 연방 유류세 한시적 면제를 위한 의회 협조를 얻어내기 쉽지 않을 전망

출처 : KOTRA 실리콘밸리무역관 종합

**GVC 뉴스 더하기 ① : EU 회원국 등 석탄 수요 증가, 기후 정책 추진 후퇴 우려**

※ 러-우 전쟁 장기화로 인해, 러시아의 가스 공급이 감축되면서 EU 회원국을 중심으로 석탄 수요가 다시금 늘어나고 있음.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이 늦어지고 있는 아시아 신흥국에서의 석탄 수요 증가도 함께 발생하는 등 글로벌 석탄 소비 및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바, 관련 최근 동향을 살펴보자

- **러시아, EU 역내 가스 공급량 대폭 감축으로 우크라이나 지원 견제**

- 러시아는 5월 루블화 결제를 거부한 일부 EU 회원국에 가스 공급을 중단한 데 이어, 6.17일에는 기술 결함을 이유로 **대규모 공급량 감축**
 - 현재 러시아 가스 공급 감소가 보고된 회원국은 △독일(60%), △프랑스(100%), △이탈리아(50%), △체코,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등
 - 러시아 국영 가스 기업 가즈프롬은 EU 제재로 인한 노드스트림1 파이프라인 유지보수 문제를 공급 감소 원인으로 밝히고 있으나, 해당 보수 업체는 유지 보수에 문제가 없으며, EU 집행위 역시 제재와 유지 보수는 관계가 없다고 반박
- 다수의 언론 및 전문가들은 **EU의 우크라이나 지원과, EU의 동절기 가스 비축량 확보 저지를 위한 러시아의 견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

〈 (참고) EU 역내 러시아 천연가스 공급 단축 현황 〉

회원국	가스 중단 및 감축	원인	전체 가스 수요 대비 러시아 가스 의존도* (*2020년 기준 Statista 통계)
핀란드	중단	루블화 결제 거부	94%
불가리아	중단	루블화 결제 거부	77%
슬로바키아	감축	원인 불명	70%
체코	감축	유지보수 결함	66%
오스트리아	감축	유지보수 결함	64%
독일	60% 감축	유지보수 결함	49%
이탈리아	50% 감축	유지보수 결함	46%
폴란드	중단	루블화 결제 거부	40%
프랑스	중단	유지보수 결함	24%
네덜란드	중단	루블화 결제 거부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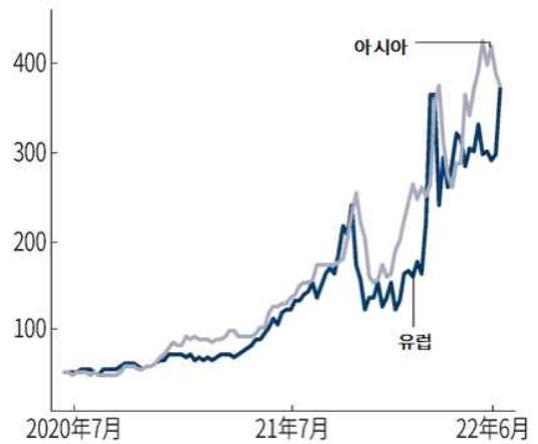
- **EU, 러시아 가스 공급 감소에 따른 에너지 수입 다양화 및 소비 감축 계획 발표**

- EU 일부 회원국은 러시아 가스 공급 감소분의 상쇄를 위해 **석탄 발전소를 가동할 것으로 전망됨**
 - 독일, 동절기 가스 비축을 위해 전력 부문과 산업 에너지 소비에서 가스 비중을 줄이는 조치 추진(6.20일)
 - 특히, 추가 가스 비축분 확보 위해 기존에 가스로 생산하던 6TWh 전력을 석탄으로 전환하여 생산할 계획
 - 그 외 회원국들도 가스 감축분을 상쇄하기 위해 기존 석탄 발전소의 용량 증가 및 신규 건설 계획 발표
- 한편 EU 회원국들은 러시아의 가스 추가 감축 가능성을 우려, **예년보다 석탄 수입도 증가세**
 - 러시아산 석탄의 대안 확보 위해, EU 회원국의 '22년 상반기 남아공산 석탄 수입이 지난해보다 40% 증가*
 - * EU의 주요 석탄 수입대상국인 남아공은 올해 △네덜란드,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덴마크, △폴란드, △독일 등에 총 324만 톤의 석탄을 수출했다고 발표
 - 지난주 유럽의 가스 가격은 50% 이상 상승(팬데믹 이전의 6배) → 인플레이션 압박에 따라 석탄 사용 증가 전망

● **러-우 사태 이전부터 세계 석탄 소비 성장은 아시아 신흥국이 견인, '22년 투자 증가 예상**

- 인도 등 아시아 신흥국은 석탄화력이 주전력원으로 코로나 이후 경제 회복으로 전력 소비 증가
- 중국은 대외적으로는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지를 선언했지만, 중국 국내 신규 발전소 건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 러시아는 세계 유수의 산탄국이기에 러-우 사태에 따른 글로벌 공급 불안으로 발전용 석탄(일반탄)의 가격이 상승 추세, 아시아와 유럽 가격 모두 1톤당 370달러 전후로 전년도 가격의 3배 이상 수준으로 상승 국면
 - 아시아 지표인 호주산 석탄 스팟 가격은 5월 하순 한 때 약 425달러를 찍으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
- 수급 위기와 가격 상승으로 석탄 공급에 관한 투자도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21년 대비 '22년 석탄 투자 금액은 10% 증가가 예측됨 (IEA)
 - 이미 '21년도 전년 대비 10% 투자액 증가한 1,050억 달러
- **가스와 석유의 상류부문 투자도 '21년 대비 '22년 1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 (IEA)**
 - 에너지 가격 상승을 기회로 전년 대비 약 10% 투자 증가 예상
 - '22년도 세계 석유·가스 업계의 수입은 4조 달러로 지난 5년간 평균의 2배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

〈 최근 석탄 가격 추이 〉



(자료: Refinitiv 자료 기반 일본경제신문 작성)

● **시사점**

- EU 집행위는 가스 공급 감소 대응을 위한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의 석탄 발전 확대 소식에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추진에서 후퇴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음
 -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 “EU의 각 회원국은 화석연료 감축 정책으로의 후퇴가 아닌, 재생에너지에 대한 대규모 투자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힘
 - 또한 EU 집행위는 에너지 절약 조치 및 가스 공급 산업의 ‘우선순위 지정’ 등 긴급 조치 추진 중
 -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로 러시아 가스 위기 출구 지속 모색(이집트·이스라엘과 천연가스 수출 양해각서를 체결, 이스라엘 가스가 이집트의 LNG 기반 시설을 통해 EU 역내로 공급될 전망)
- 직면하고 있는 에너지 수급 위기뿐만 아니라 다가올 기후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 역시 중요한 바, 주요 권역 및 국가들의 균형 잡힌 정책 및 재정 지원을 통한 준비가 필요
 - (청정에너지 투자) '21년부터 정책과 재정 지원으로 구미와 중국의 투자는 급증세이나, 신흥국의 경우 예산이 부족하고 정책 뒷받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15년 이래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음

※ **(생각해보기)** △당면한 에너지 수급 위기, △다가오는 기후변화 위기 모두 중요한 상황 → 현실적으로 각국은 당면한 에너지 수급 대응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상황

→ 정말 기후 위기가 급박하고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라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더 커져야 할 시점 → 그래야 각국이 신재생이든 원전이든 非화석에너지에 더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 것



GVC 뉴스 더하기 ② : 러-우 사태에 따른 ESG 투자의 재정의

※ 러-우 사태로, 엄격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점에서 인정하지 않던 산업들을 ESG 투자의 대상으로 재정의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 주요국 및 기업들의 새로운 ESG 관점을 살펴보자

● ESG 투자란?

- 투자 결정 과정에서 재무적 요소와 더불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및 지배구조(Governance)를 고려하는 투자를 의미
- 전 세계의 ESG 투자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로, '20년 약 35조 달러(최근 4년간 55% 증가)

● ESG 투자 대상으로의 ① 원전, ② 천연가스 : '안정된 자유사회를 지키는 전력원'

- ESG의 엄격한 'E' 관점에서 보면, 에너지원 중 원전과 천연가스는 투자 대상이 되지 않음
 - (원전) 사고 발생 시 환경에 중대한 피해를 주기에, ESG 투자 시 대상에서 배제(소거법)되는 대표 분야
 - (천연가스) 석유·석탄 등에 비해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지만, 엄격한 'E' 관점에서는 투자 대상은 아님
- 한편 러-우 사태로 에너지 안보 위기를 경험한 유럽을 중심으로 원전·천연가스를 재생에너지가 충분히 보급될 때까지 이행기의 연료원이자 적극적인 ESG 투자의 대상으로 재정의하는 움직임이 확산
 - 재생에너지가 충분히 보급될 때까지 이행기의 연료, 안정된 자유사회를 지키는 전력원으로서의 재인식
 - ⇒ (영국) 에너지 안보 전략(4.7일) 서문에 '안전·깨끗·저렴한 新원자료를 채택' 발표, '20년 이상 원전 신증설이 없었지만, '30년까지 원자로 최대 8기 건설할 계획으로 '50년 전력원 중 원전 비율 25% 목표(현재 16%)
 - ⇒ (독일 RWE) 운행 중지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재가동 검토
- 그러나 '22.6월 유럽(EU) 의회의 산하 위원회는 지난 2월 EU집행위가 수정 발의한 '원자력과 천연가스 발전에 대한 투자를 녹색 경제활동으로 인정'하는 'EU 탄소노미 규칙'을 배제하는 결의안을 채택, 7월초 EU 본회의에서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는 등 논란은 여전히 존재
 - 원자력은 '환경 목적의 어느 것에도 현저한 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DNSH, Do No Significant Harm)'는 원칙에의 적합성의 문제로 오랫동안 논란이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

● ESG 투자 대상으로의 ③ 방위산업 :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방패'

- ESG의 'S' 관점에서 보면, 방위산업은 권위주의 국가에 의한 침략이나 테러리즘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방패이기에 투자 대상으로 긍정적이라는 판단
 - (스웨덴 금융 대기업 SEB) 기존에는 방위 관련 주식을 자사 펀드의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려 했지만, 4.1일 6개 펀드를 통해 투자가 가능한 것으로 최종 결정
- 그러나 ESG 투자처 선별 시, '방어의 선취' 관점에서의 판단은 단순하지만은 않음
 - (노르웨이 정부 연금기금) 클러스터 폭탄, 핵무기 등은 투자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미사일 제조기업(美 레이시온 - 토마호크 등 미사일 및 레이더 생산)에는 투자 중

● 시사점

- 당면한 위기를 계기로 ESG를 바라보는 관점이 변하고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발생 중 → 주요 권역 및 국가들의 움직임을 지속 주시하고 이에 적합한 우리 정부·기업 등 차원의 대응 마련 필요
 - 최근 대한상회가 개최한 ESG 경영 포럼에 참여한 김형태 김앤장 수석이코노미스트도 ESG에서 'S'를 Social (사회)에 Security(안보)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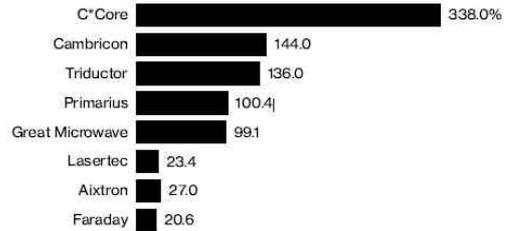
GVC 뉴스 더하기 ③ : 미국의 對中제재에도 성장하는 중국 반도체산업

※ '20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對中제재 하에서도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반도체 육성에 더욱 박차를 가해옴. 최근 중국의 자국 반도체 산업 투자에서 성과가 나온다는 보도가 있는데, 관련 동향을 살펴보자

●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두드러지는 성장

-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기록한 20개 반도체 기업 중 19개 기업이 중국 기업
 - '20년에는 전세계 20개 기업 중 중국 기업은 8개에 불과
- 지난해 중국의 반도체 칩 설계 및 제조 기업의 매출이 '20년 대비 18% 급증하여 1,500억 달러를 넘어선 것도 주목
 - 중국의 대표 파운드리인 SMIC와 화홍반도체(Hua Hong Semiconductor)는 코로나로 인한 중국 전역의 공장과 물류 마비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으로 상하이 공장을 최대 용량으로 가동. → SMIC는 최근 분기 매출 67% 급증, 경쟁사인 GlobalFoundries와 TSMC를 앞지름
- 미국의 對中제재 대항을 위한 중국 정부의 '작은거인(기술기업) 육성 프로젝트' 등을 통한 수십억 달러의 투자와 중국의 자급자족 공급망 추구 노력이 맞물려 나타난 성장으로 보임

〈 '21년도 중국 반도체 기업 매출 증가율 〉



(자료 : Bloomberg)

● 중국은 반도체 제조 장비 수입도 세계 1위

- 4년 연속 중국의 반도체 장비 수입은 증가, '21년 전년대비 58% 증가한 296억 달러로 2년 연속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시장
 - '22.1분기에도 전년 동기대비 27% 증가한 75.7억 달러 수입
- 이는 생산능력을 확대 중인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에 대한 추가 제재에 대비하고, 자국내 공급망 구축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됨

〈 주요 국가별 반도체 장비 수입액 〉(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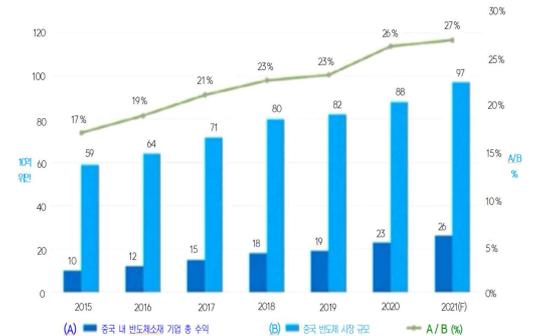
국가	'21년	'20년	증가율
중국	296.2	187.2	58%
한국	249.8	160.8	55%
대만	249.4	171.5	45%
일본	78	75.8	3%
북미	76.1	65.3	17%

(자료 : SEMI)

● 반도체 소재 내재화에서도 성과

- 중국의 '15년 소재 내재화율은 17%이었으나 '21년 매출액 기준 27%(260억 위안)로, 6년 사이 10%p 상승
 - 중국은 '15년 '반도체 굴기'를 선언하며 '25년 반도체 자급률 70% 달성 목표를 발표
- 또한 중국은 52개 자국 반도체 공장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시안 공장, SK하이닉스 우시 공장, TSMC 등 해외 기업 포함 68개 공장이 운영될 정도로 활발한, 세계 2위의 소재 시장으로 자리잡음

〈 중국 내 소재 내재화 증가율 〉



(자료 : 안지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SMC 발표자료)

● 전망 및 시사점

- 중국 정부의 △자국 기업 투자, △부품 자급자족, △자국산 구매 독려 전략에 힘입어 중국 반도체 산업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이러한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위한 움직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미국의 對중국 제재가 오히려 이러한 중국의 반도체 제조 및 공급 붐을 부추겼다는 의견도 있음
- 반도체가 전략산업으로 인식되며 주요국이 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는 바, 우리는 한국·미국·일본·대만 등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의 추격 극복뿐만 아니라 공급망 재편 등에 대비한 기술력 제고 필요

※ (최근 한·중 반도체 기술력) 낸드플래시는 중국의 성장으로 중장기 경쟁 심화 전망. 파운드리에는 한국의 기술 우위가 지속되나 **성숙공정**은 중국의 투자 확대로 한국 입지가 좁아질 가능성. **장비**는 한-중간 기술격차가 좁혀졌으나 중국이 미국 의존도를 낮추면서 우리기업들에게 **기회와 위협이 공존** (22.5월 한국수출입은행 이슈보고서)



GVC 전문가 : 김양팽 전문연구원(산업연구원)

-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움직임과 정책적 시사점”

※ 중국은 반도체 독립을 위해 반도체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으나 미국은 철저히 이를 견제하고 중국을 제외한 반도체 공급망 구축을 구상 중임. 미-중간 반도체 패권 경쟁 속에서 주요국의(EU, 일본 등) 반도체 지원정책을 조명하고, 우리의 대응 방향을 모색해보자

- '11년부터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시장으로 부상하였으나,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중국 정부는 반도체 산업을 국가 중점 산업으로 규정하고 지원정책을 잇달아 추진 중
 - '14년 「국가 반도체산업 발전 추진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15년 「중국 제조 2025」 추진했으며, '19년을 반도체 굴기 원년으로 선언하고 중점 지원 중
 - '제14차 5개년 계획(21~25년)을 통해 반도체 산업 육성 및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책을 더욱 강화
- 중국이 2010년대에 들어서며 본격적으로 반도체산업을 육성하고 자국 기업을 지원하자 미국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견제 중

〈 미국의 중국 반도체에 대한 주요 제재 〉

제재 일시	조치사항	주요 내용
'19.5	트럼프 대통령, '정보통신 기술·서비스 공급망 확보' 행정명령 서명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외국산 장비 사용을 금지
'20.5	화웨이에 대한 제재 조치 발표	제3국에서 제조한 반도체라도 미국 기술이나 장비를 활용한 제품의 경우 화웨이에 제품 판매 금지
'20.12	미 상무부·국방부, SMIC를 거래제한 기업 명단에 포함	대상 기업에 반도체 제조 장비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의 허가가 필요
'21.2	바이든 대통령, 반도체를 포함한 4대 품목 공급망 조사를 명령	반도체, 배터리, 의약품, 희토류 등 4대 품목을 100일간 조사
'21.7	미 상무부, 네덜란드 정부에 ASML 장비의 대중국 수출 금지를 요청	최첨단 노광장비인 ASML의 EUV 장비의 대중국 수출이 보류
'21.9	미 상무부, 반도체 기술·장비의 대중국 수출 시 사전 허가가 필요함을 통보	자국 반도체 기술·설비 업체들에게 SMIC로의 수출은 사전허가를 필요하다고 통보
'22.3	미 정부, 한국·대만·일본 정부 및 기업에 '칩 4(Chip 4) 동맹' 결성을 제안	중국을 제외한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추진

- '17~'18년 반도체 초호황기 이후 반도체산업이 불황에 직면할 것이라는 위기의식과 '18년 미-중 무역분쟁 본격화로 세계 경기 둔화를 우려한 반도체 기업들이 대부분 감산을 결정하고 투자를 지연
 - 미국의 마이크론사는 '19년 3월 낸드플래시와 D램의 생산량을 각각 5% 줄이겠다고 발표했으며, 일본의 르네사스사의 경우 생산량의 10%를 줄이기 위해 국내외 생산공장 14개 중 13개 공장을 부분 가동 및 생산량 조절을 단행
-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등 수요산업의 빠른 회복으로 산업별 수요 예측이 빗나가면서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이 발생한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시작
 - 차량용 반도체 생산기업은 생산을 늘리며 대응하려 했지만, 반도체 제조공정의 특성상 즉각적인 설비 전환 등의 대응이 어렵고 타 수요처 역시 예상과 다른 수요 증가로 부족 문제가 확산
 - 대만의 가뭄에 따른 물 공급 부족과 미국 텍사스주의 한파로 인한 전력 부족 사태, 일본 지진 등의 기상 이변과 사고의 여파로 반도체 부족 현상이 장기화

● **주요국들은 반도체 제조 분야 강화를 위해 반도체산업 지원정책과 지원법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며, 이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변화를 예고**

- (미국) '20년 6월 미국 의회는 한국과 대만 등 아시아에 편중된 반도체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자금과 세금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
- (중국) 반도체 자립을 목표로 자국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일관된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한편 외국 기업 유치도 병행하여 추진
- (대만) 반도체 제조경쟁력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첨단산업을 위주로 리쇼어링(국내복귀) 지원정책을 추진 중이며, 반도체 보조금 및 R&D 프로그램 등의 국내 반도체산업 강화 정책을 수립
- (일본) 반도체산업 부활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국내 기업 지원보다 TSMC 등 해외 반도체 기업 유치에 초점을 두고 추진 중
- (EU) 역내 반도체 생산을 확대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역할을 부각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 주요국의 반도체산업 정책 비교 〉

국가	목표	주요내용
미국	자국 내 반도체 제조 기반 강화	국내외 기업의 생산설비 확충을 위해 자금 및 세제 지원
중국	반도체 자립	국유기업을 통한 반도체 생산능력 확보
대만	반도체 제조 경쟁우위 유지	인력 양성, 규제 개혁, 과학단지 확장을 통한 국내 산업 활성화
일본	반도체산업 부활	TSMC, 마이크론 등 외국 기업의 생산공장 유치
EU	반도체 제조역량 회복(확보)	역내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역외 기업 유치

● **인텔, TSMC, 삼성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자국 또는 인도, 독일, 일본 등에 반도체 제조 기반을 강화하고 있어 파운드리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

〈 글로벌 기업의 반도체산업 투자 계획 〉

기업	주요 내용
인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운드리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고 선언했으며, 미국과 유럽 등에 공장 신설 계획 마련(21.3) - 미국 애리조나주에 200억 달러 규모의 파운드리 신설 투자 계획 발표(21.4) - 미국 오하이오주에 200억 달러를 투자하여 2개의 첨단 반도체 공장을 건설한다는 계획 발표(22.1)
TSM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의 자국 내 생산공장 구축 요구에 외국 기업 중 가장 빠르게 대응, 일본에도 생산공장 건설 추진 - 미국 애리조나에 1,000억 달러를 투자하여 파운드리 공장을 설립한다는 투자 계획을 발표(20.5)했으며, '21.6월 착공 → 금년부터 생산설비를 반입 예정 - 일본 구마모토현에 22~28 나노 반도체 생산공장 건설 계획(21.10), '22년 착공 → '24년 양산 계획
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택 캠퍼스에 투자를 지속하는 한편, 미국에도 파운드리 공장을 추가로 신설할 계획 - 평택 캠퍼스에 향후 10년간 133조 원 투자 계획을 발표 → 투자 규모를 171조 원으로 상향(21) - 미국 테일러시에 신규 파운드리 구축 계획(170억 달러), '22년 상반기 착공 → '24년 공장 가동 예정

● **결론 및 시사점**

- 미국·유럽·일본 등지에서 반도체 생산이 늘어나면서 반도체 수요기업의 대만·한국 등 아시아 지역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은 자연스럽게 재편되고 다각화될 전망
-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재편되면 메모리반도체의 경쟁우위 유지 등 한국 반도체산업의 글로벌 위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 우리나라 반도체산업 구조상 생산은 미국의 기술이 필요하고 수요는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므로 미-중간 경쟁 속에 구축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체계를 강화할 필요
- 정부는 현재 강점인 반도체 제조 기반을 강화하고 시스템반도체 역량을 확보하여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는 전략을 추진해야 함

GVC 기초 상식 : 에너지 원자재와 식량 가격의 관계

※ 기름값이 오르면 밥값도 오른다고?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에너지 원자재는 사실 식량 가격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 에너지 원자재가 어떻게, 얼마나 식량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자.

● 식량 가격은 유가와 동반 상승해왔음

- 최근 러-우 전쟁으로 식량 가격이 급상승 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지만, 식량 가격 상승은 '20년 하반기부터 지속되어온 현상임
-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서 집계하는 세계 식량가격지수는 91.14('20.6월) → 135.31 ('21.12월)로 18개월 사이 약 48% 상승
- 같은 기간 국제유가도 배럴당 40.8 → 74.8 달러로 약 83% 상승



자료 : Bloomberg, FAOSTAT

● 이는 원유·석탄·천연가스 등 에너지 원자재가 식량 가격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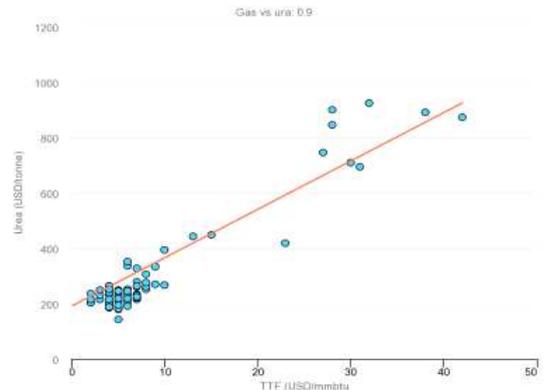
(1) 작물의 효율적인 생산을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비료는 대부분 천연가스를 이용해 만들어짐

- 특히 질소질비료에 사용되는 암모니아와 요소의 생산비 중 약 70~80%는 천연가스가 차지할 정도로 천연가스 가격과 비료의 가격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짐

(2) 작물 재배를 위한 자동관개시스템(irrigation)의 운영, 수확한 작물의 가공을 위한 설비 가동 등에 소모되는 전력은 에너지 원자재 발전을 통해 충당

(3) 농기구의 운전(이용)과 수확 작물의 물류·수송을 위해 석유가 직접적으로 소모됨

〈 천연가스와 요소 가격의 상관관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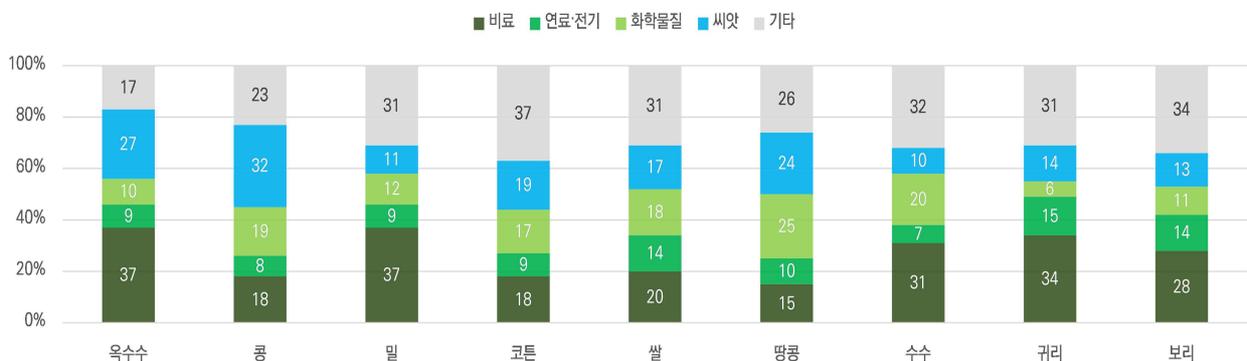


자료 : IEA

● 작물 생산비 중 50% 가량이 에너지 가격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비료, 연료·전기, 화학물질은 에너지 가격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요인들로서, 밀(58%), 옥수수(56%), 쌀(52%) 등 주요 작물 생산비의 절반 이상이 에너지 원자재로부터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구조

〈 작물별 생산비 구성 〉



자료 : IEA

**GVC 돋보기 : 미국의 對러 수출통제 (미국 수출통제 시리즈 2편)**

※ 러-우 전쟁 발발에 따라 '22.2월말 美정부는 수출관리규정(EAR) 개정을 통해 최초의 범국가 단위의 수출통제를 실시, 향후 국제 무역·기술 경쟁 상황 속에서 수출통제 제도의 역할이 부상할 것으로 전망됨. 오늘은 3편의 시리즈 중 제2편으로 미국의 對러 수출통제 현황을 소개함

<미국 수출통제 시리즈>

17호	미국 수출통제 제도
18호	對러 수출통제
19호	對중 수출통제

●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 및 제재 수위 지속

- 美상무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응해 대러 수출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수출관리규정 개정 (2.24) 이후 후속 개정을 통해 제재 수위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음
 - 미국 및 우방국의 첨단 기술에 대한 접근을 차단함으로써 러시아를 (1) 기술적으로 고립시킴과 동시에 (2) 러시아의 군사적 역량을 저하시키는 효과 기대

● 러시아 국가 전체 대상 수출 면허제(License Requirement) 가동

- 상업통제 리스트(CCL)의 모든 카테고리 0~9 분류*에 포함되는 모든 제품을 러시아로 수출, 재수출, 이전 시 상무부의 수출 면허 취득 의무
 - EAR99로 분류되는 일반 상용품(commercial items)은 수출 면허제에서 제외
 - (2.24일) EAR 개정 시 CCL 카테고리 3~9에 대한 수출통제 발동 ⇒ (4.9일) 상무부는 추가로 CCL 카테고리 0~2까지 대상 범위 확대, 쉰 카테고리로 대상 확대
- 거부 정책(Policy of Denial)을 적용하여 예외를 최소화
 - △항공·항해 안전, △인도주의적 목적, △정부 간 협력, △민간 통신 인프라, △러시아 내 동맹국 기업의 사업 등에만 라이선스 면제를 제한적으로 허용

● 군사적 최종 사용(MEU, Military End Use)에 대한 수출통제 품목 확대

- 군(군수 기업 등)이 최종 사용자일 경우, 군용품 외 전 제품으로 수출통제 확대, EAR99로 분류되는 일반 상용품까지도 수출 면허제에 포함
 - 단, 식품 또는 의약품(EAR99), 일반 시장에서 유통되는 통신기기(ECCN 5A992.c), 소프트웨어(ECCN 5D992.c)는 면제 가능

● 해외직접생산품 규칙(FDPR) 신규 적용

(1) **【대러 수출 전체에 적용 'Russia FDP rule'】** 해외에서 (1) 미국의 기술·SW로 직접 생산된 제품, 또는 (2) 미국 기술·SW로 설립된 공장 또는 부품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수출 허가제 적용
- 단, 러시아 국민이 대중적으로 이용하는 소비재(Consumer Items)는 제외

(2) **【러시아 최종 군사 용도 품목 적용 'Russia-MEU FDP rule'】** 미국의 기술, 장비, 소프트웨어로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을 별도로 지정된 Entity List 대상에 수출하는 경우 ⇒ 상무부 수출 면허 취득 필수
- 상무부는 러시아 군사·보안·연구개발을 지원한 91개 단체를 추가 Entity List에 포함 (러시아 81개, 영국 3개, 스페인 3개, 에스토니아 3개, 카자흐스탄 1개 등)

(3) **【유사 조치를 채택하는 협력 국가에 대한 FDPR 규정 면제 혜택】** 미국의 수출통제 수준의 제도를 채택하거나, 채택 의사를 밝힌 협력국*은 FDPR 적용에서 제외 ⇒ 상무부 수출 면허 취득 불요

* (2.24) EU 27개국 및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영국 포함 / (3.7) 우리나라 포함 / (4.8)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포함

● 수출 면허 면제 사유를 구체화함으로써 통제 효과 제고

- 다음 상황의 경우에 상무부의 대러시아 수출 승인 취득 의무에서 면제 가능
 - △언론보도 목적, △특별 정부 활동, △러시아 내 미국 또는 동맹국 기업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무기류 제외 일반 수하 물품, △항공 여객 관련, △암호화 관련(군용 제외), △개인 통신기기(군용 제외)

● 러시아 에너지 분야에 대한 수출통제 확대

- 러시아 심해 석유·가스 시추 산업에 대해 미국의 수출 및 미국의 기술이 사용된 해외 생산 제품의 수출을 통제 대상에 포함 (3.4일)

● 대러 사치품 수출통제 명령

- 러시아 및 러시아 신흥재벌에 대한 사치품 수출 시 수출 면허 취득 의무
 - 사치품 : 주류, 담배, 화장품류, 피혁류, 모피, 섬유 의류, 귀금속, 자동차, 시계, 악기류, 예술품 등

● 러시아 민항기·항공사 대상 제재

- 대러 수출통제 위반 혐의로 러시아 및 벨라루스 소속 민항기 153대에 대한 수출통제 명령 (급유, 정비, 수리, 부품 교체 등 포함), 러시아 항공 3사(Aeroflot, Azur Air, UTair)에 대한 임시 수출거부 명령(TDO, Temporary Denial Orders) 발동
 - TDO를 통해 해당 개인(기업)의 수출 또는 재수출 권리가 180일간 중단(효력연장 가능)

〈 미국의 대러 수출통제 경과 현황 : 2022년도 〉

주요 내용	일자	관련 정부 발표(상세)
對러 수출통제 강화 목적 규정 개정	2.24	https://go.usa.gov/xzZAe
對벨라루스 수출통제 강화	3.02	https://go.usa.gov/xzZAz
러 에너지 섹터 제재 및 Entity List 추가	3.04	https://go.usa.gov/xzZAS
한국 GDPR 면제 결정 발표	3.07	https://go.usa.gov/xzk2C
對러 사치품 수출통제 발표	3.11	https://go.usa.gov/xz5MP
러시아 민항기 제재(1)	3.18	https://go.usa.gov/xz5MP
러시아 민항기 제재(2)	3.30	https://go.usa.gov/xu3Dm
러시아·벨라루스 Entity List 120개 추가	4.01	https://go.usa.gov/xu3Dn
러 항공사 대상 임시 수출거부 명령	4.07	https://go.usa.gov/xucvk
아이슬란드 등 4개국 GDPR 면제 결정	4.08	https://go.usa.gov/xucvk
CCL 수출통제 카테고리 확대	4.09	https://go.usa.gov/xuczS
러시아·벨라루스 민항기 제재(3)	4.14	https://go.usa.gov/xuTq6
러시아 화물 항공사 제재	4.21	https://go.usa.gov/xukmj
러시아 산업의 미국 수출 제한 강화	5.09	보도자료 (클릭)
러시아 항공사 임시 거부 명령 및 항공기 추가	5.20	보도자료 (클릭)
러시아·벨라루스 수출 통제 절차 개정	6.02	보도자료 (클릭)
러시아 Entity List 71개 추가		보도자료 (클릭)
유럽 수출 통제 집행 조정 위원회 회의		보도자료 (클릭)
Roman Abramovich에 대한 고발 서한 발행	6.06	보도자료 (클릭)
캐나다와 안보 기술 및 품목에 대한 보호 강화	6.07	보도자료 (클릭)
벨로루시 화물 항공사 제재	6.16	보도자료 (클릭)
러시아 화물 항공사 추가 제재	6.24	보도자료 (클릭)

출처 : 미국 상무부 BIS 홈페이지 (6.28일 기준)

☞ 다음호(19호)에서 「미국의 對中 수출통제 사례」로 이어집니다.

GVC 소식통 ① : 기업들을 위한 물류 지원 사업 안내

●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제3국 해외공동물류센터 지원 특별사업 (KOTRA)

- (지원내용) 러-우 사태로 수출애로를 겪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인근지 화물 보관
- (지원규모) 국고 기업분담금 매칭으로 100만~1,000만원 지원(국고지원 비중: 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 VAT포함)
- (절차) ①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사업신청 > 사업명: '물류 검색' 해당사업 클릭 → ② 지원가능 여부 검토 (해외무역관) → ③ 참가업체 선정(본사) → ④ 선정통보 및 참가비 납부 → ⑤ 무역관과 협약서 체결 → ⑥ 사업지원개시
- (문의처) KOTRA 유망기업팀 ☎ 02-3460-7445, 7430, 7426

● 수출 중소기업 전용 선박 운송 지원 안내 (KOTRA·삼성SDS·CJ대한통운)

- (사업내용) 선복부족 애로사항이 지속 접수됨에 따라 기업이 기 확보한 정기 선박의 일부를 국내 중소 수출기업에게 제공하여 적기 수출 지원
-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 및 KOTRA 회원사
- (신청기간) 추후 공시 시까지 수시 접수(접수 물량 초과될 경우 선착순 마감)
- (서비스 노선) 출항: 부산항 / 도착: 하단 참조

〈 해상 - 출항 정보 〉

운송지원사	구분	가용선복(TEU/Week)	주요기항지
CJ대한통운	일본	10	도쿄, 나고야, 오사카, 고베
	동호주	5	브리즈번, 시드니, 멜버른
	북미 서안	3	(서안) 엘에이, 롱비치, 시애틀, 타코마
	북미 동안	2	(동안) 뉴욕, 사바나, 노퍽
	중남미 서안	3	(서안) 만자닐로
	중남미 동안	2	(동안) 산토스, 부에노스아이레스, 이타자이, 몬테비데오
	유럽	15	안트워프, 로테르담, 함부르크, 사우스햄튼, 그디니아, 르하브르
	서지중해	5	바르셀로나, 발렌시아, 제노아
	동지중해	5	이스탄불, 이즈미트
	아프리카	5	더반, 몸바사 ▶서아프리카 제외
	중동	7	제벨알리, 담만, 소하르
삼성 SDS	서남아	8	나바세바, 첸나이, 카투팔리 ▶방글라데시 제외
	북미 서안	40	LA, 롱비치, 오클랜드, 시애틀, 밴쿠버
	북미 동안	10	뉴욕, 사바나
	북유럽	20	로테르담, 함부르크, 앤트워프
	지중해	10	제노아, 바르셀로나, 발렌시아, 포스
	남미 동안	20	산토스, 이타자이, 부에노스아이레스, 몬테비데오
아시아	20	호치민, 방콕, 람차방, 포트켈랑, 하이퐁(추가)	

- (상세내용) [CJ대한통운 중소기업 전용선복 지원안내\(클릭\)](#) 또는 [CJ대한통운 중소기업 전용선복 지원 안내\(클릭\)](#)을 통해 확인
- (참가신청) ① CJ대한통운: [링크\(클릭\)](#) / 'KOTRA 무역투자 24 > 사업신청 > #물류/통관'을 통해 신청
② 삼성SDS: [링크\(클릭\)](#) / 'KOTRA 무역투자 24 > 사업신청 > #물류/통관'을 통해 신청
- (문의처) KOTRA 「유망기업팀」 ☎ 02-3460-7436

● **[해상운송] 미국 롱비치항 수출 중소기업 해상운송 지원사업 (한국무역협회·SM상선)**

- (사업개요) 수출 중소기업(화주) 전용 선복을 통한 해상운송 지원
- (지원대상) 한국發 미주 수출 물량이 있는 수출 중소기업(실화주) *포워드사는 신청불가

〈 항차 정보 〉

도착지	출항일(부산)	신청마감일	선적 물량
美 롱비치항 (미국 서안)	7월 26일(화)	7월 7일(목)	30TEU

※ ①접수 물량이 선적 물량을 초과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음 ②매 항차에 대해 신청서 재작성 必

- (상세내용) 국적 해운선사 "SM상선"을 통한 수출 중소기업 해상운송 지원사업(클릭)을 통해 확인
- (참가신청) 링크(클릭)에서 '지원사업 신청 양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이메일 제출(hjo117@kita.net)
- (문의처) 한국무역협회 「화물예약데스크」 ☎ 02-6000-5754 / hjo117@kita.net

● **[해상운송] 중소기업 철강 벌크화물 해상운송 지원사업 (한국무역협회·포스코)**

- (사업개요) 포스코의 수출 화물과 국내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 화물을 합적하여 해상 운송 지원
- (지원대상) 벌크화물 수출 중소기업(철강 반제품류*) 및 포워드

*포스코의 '수출 물류 합적 플랫폼'을 통해 합적 운송이 가능한 제품인지 확인 필요

〈 항차 정보 〉

출항지	도착지
포항항, 광양항 (포스코 제철소 소재지)	세계 주요 80개 항만(미주·유럽·서남아·중국·일본·동남아)

- (상세내용) 포스코 공동 "회원사 해상운송 지원사업" (클릭)을 통해 확인
- (참가신청) 온라인 신청 : 포스코 "수출 물류 합적 플랫폼" (www.steel-n.com) → 회원가입 신청 → 회원가입 승인 이후 화물 합적 신청
 메일 신청 : 링크(클릭) → "포스코 수출 물류 합적 플랫폼 회원가입 신청서" 다운로드 → 작성 후 hjee0913@poscoflow.com으로 제출
- (문의처) 사업·참가신청 방법 안내 문의
 한국무역협회 「물류서비스실」 ☎ 02-6000-7617/5359 / hjo117@kita.net
 화물 합적 가능여부 확인·플랫폼 관련 문의
 포스코 해외철강물류그룹 ☎ 02-3457-3199 / hjee0913@poscoflow.com

● **[항공운송] 프랑크푸르트(독일) 수출 중소기업 항공운송 지원사업 (KOTRA·대한항공)**

- (사업개요) 항공운송 부족 애로사항 지속 →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항공기 수출 스페이스 운송 증편(~22.12월)

〈 항공 - 항차 정보 〉

출항예정일(매주)	예약 마감일	서류/화물 (입고) 마감	중소기업 전용 스페이스
수요일	화요일 17:00	수요일 12:00 이전	편당 3톤 내외
일요일	금요일 12:00	금요일 17:00 이전	

- (상세내용) KOTRA-대한항공 중소기업 항공운송 지원 안내(클릭)를 통해 확인
 * 일반 화물 대상(냉장·냉동·위험물 등 특수화물 진행 불가)
- (참가신청) 링크(클릭) 또는 'KOTRA 무역투자 24 > 사업신청 > #물류/통관'을 통해 신청
- (문의처) ▲ KOTRA 「유망기업팀」 ☎ 02-3460-7436, ▲ 항공물류수행사 ☎ 02-310-6554

● **[복합운송] 유럽·러시아向 수출기업 해상+철도 복합운송 지원사업 (한국무역협회·LX판토스)**

- (사업개요) 우리 수출기업을 위한 전용 선복 마련
→ ① **운임 할인(10~15%)**, ② **선복 지원(항차별 30TEU 확정 지원)**, ③ **실시간 가격 조회 및 이력관리 제공**
- (지원대상) **국내 수출기업(실화주)** *포워더社は 신청불가

〈 항차 정보 〉

해상+철도 복합운송					내륙운송	
노선	출발지	도착지	소요일	컨테이너	최종도착지	소요일
TCR	인천/평택	폴란드 말라세비치	30일	40피트 (*20피트 불가)	유럽 전역	+2~3일
TSR	부산	폴란드 말라세비치	45일	20피트· 40피트		
		러시아 모스크바	40일		모스크바 인근 지역	

- (상세내용) 유럽向 수출기업 해상+철도 복합운송 지원사업 안내(클릭)를 통해 확인
- (참가신청) 링크(클릭) 또는 'KITA.net > 무역지원 서비스 > 무역지원 사업일정'을 통해 신청
- (문의처) 한국무역협회 「화물예약데스크」 ☎ 02-6000-7617/5935 / logistics01@kita.or.kr

● **[물류보관] 수출 컨테이너 부산신항 물류센터 일시 보관 지원사업 (한국무역협회·칼트로지스)**

- (사업개요) 항만 CY 적치 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① **수출 컨테이너 보관장소 제공** ② **보관료 할인(일반가격 대비 30%)** ③ **기타 물류 업무 상담 및 지원**
- (지원대상) **국내 수출기업(실화주)** *포워더社は 신청불가

〈 서비스 정보 〉

	서비스 내용	여부	비고
1	수출업체 → 물류센터 화물운송	불포함	수출업체가 포워더/운송사를 통해 직접수배 필요
2	물류센터 상하차	포함	시장가 대비 저렴한 금액으로 제공
3	물류센터 보관		
4	물류센터 → CY터미널 셔틀		

※ ① 일반 드라이 컨테이너 대상이며, 특수 컨테이너는 사전 문의 및 확인 필요 ② 장기보관 희망 시, 보관일 관련 사전 협의 필요

- (상세내용) 수출 컨테이너 부산신항 물류센터 일시 보관 지원사업(링크)를 통해 확인
- (참가신청) 링크(클릭)에서 신청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이메일 제출(hjo117@kita.net)
- (문의처) **지원사업 문의**
한국무역협회 「화물예약데스크」 ☎ 02-6000-5754/5935 / hjo117@kita.net
물류센터 보관 및 작업 문의
칼트로지스 「부산신항물류센터」 ☎ 051-366-8011 / hukim@calt.co.kr / jhshin@calt.co.kr



GVC 소식통 ② : 공급망 관련 상담회 및 포럼 개최 소식

● '2022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새로운 트렌드와 기회' 포럼

- 코로나19, 러-우 전쟁 등 글로벌 공급망 시장의 큰 변화가 예상되는 현 시점, KOTRA는 우리 기업의 공급망 재편 트렌드 대응 및 새로운 기회 발굴을 지원하고자 국내외 공급망 전문가 초청 포럼을 개최

• 일시/장소 : 7월 11일(월) 14:00~16:30 / JW메리어트호텔서울 그랜드볼룸(5F)

신청 QR



• 신청기한 : 7월 7일(목) 限

• 참가신청 : [2022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새로운 트렌드와 기회\(클릭\)](#)에서 신청
※ 현장 참석은 장소 제약으로 인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모집 마감 시 유튜브 라이브 링크 안내 예정

• 프로그램

시간대	내용	비고
14:00-14:03 (3)	개 회 사	혁신성장본부장
14:03-14:30 (27)	글로벌 공급망 재편 동향 및 트렌드	국제경영관리학회
14:30-15:00 (30)	공급망 위기에 따른 국내 제조업 영향 및 대응전략	산업연구원
15:00-15:30 (30)	2022 글로벌 원자재 시장 전망 및 시사점	Korea PDS
15:30-16:00 (30)	[미국/화상] 반도체 산업 공급망 재편에 따른 기회	美 반도체산업협회
16:00-16:30 (30)	[유럽/화상]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따른 원자재 수요 동향	유럽금속협회

• 문의처 : KOTRA 공급망 포럼 사무국 ☎ 070-8884-6000 / kotra.pjt@gmail.com

● 글로벌 공급망 현장 컨설팅

- 우리 기업의 공급망 대응 및 밸류체인 진입을 위한 1:1 무료 현장 컨설팅

• 일시/장소 : 7월 11일(월) 12:30~14:00 / JW메리어트호텔서울 그랜드볼룸(5F)

신청 QR



• 신청기한 : 7월 7일(목) 限

• 참가신청 : [2022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새로운 트렌드와 기회\(클릭\)](#)에서 신청
※ 포럼 신청 링크와 동일, 하단 현장 컨설팅 신청 클릭하여 사전 질의 작성 필수

• 상담내용 : ① KOTRA 원부자재 공급선 조사 서비스 안내, ② 자동차 및 반도체 GVC 진입 및 공급망 관련 상담, ③ 공급망 관련 기업 M&A 상담

• 문의처 : KOTRA 공급망 포럼 사무국 ☎ 070-8884-6000 / kotra.pjt@gmail.com

● 한-중(산동성) 산업협력 플라자

-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의 협업 확대를 위해 산동성 유망 산업인 **조선해양, 화학, 스마트팜/환경, ICT 등 비소비재 분야** 기업과 우리 기업 간의 **비즈니스 상담회, 기업 IR(기술 로드쇼)**을 진행

• (일시/장소) 8월 17일(수) / 온라인 [중국 지난(濟南) 현지에 지사 존재하는 경우 현장상담 가능]

• (신청기한) 7월 8일(금) 限

• (참가신청) [KOTRA 한-산동성 산업협력 플라자\(클릭\)](#)에서 신청하기 클릭 / 1)사업신청서 작성 및 2)기업 IR자료(중문/영문 버전) 첨부

- 신청 링크에서 사업 상세내용 확인 가능 / 용량초과로 인해 첨부 불가시 아래 문의처 메일로 송부 요망

• (문의처) KOTRA 청다오무역관 한여령 과장 ☎ (+86)-532-8388-7931 / yeoryung@kotra.or.kr



더 찾아보기 : '세계사를 바꾼 15번의 무역전쟁'(자오타오·류후이) 책 소개

※ 무역전쟁의 역사에서는 패권국이 쇠락할 때 국제적인 무역전쟁이 유달리 빈번했음. 쇠락을 겪는 와중에 보호무역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도권을 차지하여 '수세'로 전환하기 때문임. 춘추전국시대부터 파스 아메리카나까지 인류 역사 중 15번의 무역전쟁을 살펴보고, 오늘날 우리의 생존 지혜를 찾아보자

무역전쟁 (시 기)	주요 내용	결과 및 영향
관중의 사재기 (춘추시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대국의 非전략물자를 적극 구매 → 상대국 경제가 非전략 물자에 치중 → 전쟁을 통해 상대국을 굴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나라(한공)이 춘추시대 패권을 차지 (형산·노·양·초나라를 차례로 복속)
호시무역의 승자 (송, 요, 명, 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송·요 호시무역 → 요나라의 국부가 송나라로 유출 명나라의 쇠솔무역(매매통제), 청나라의 인삼무역(경제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력한 경제력과 수준 높은 문화로 주도권을 쥐고 있던 나라가 막대한 무역흑자를 바탕으로 상대국을 무력화
항료무역 (16~17세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베네치아가 약 300년간 항료무역을 독점 독점 타파를 위해 새로운 항로 발굴 → 대항해시대 서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료무역의 독점적 권한 변화(베네치아 → 포르투갈 → 네덜란드)
네덜란드의 흥망성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는 국제무역 패권 장악의 원동력 영국은 1651년 '항해조례'를 통해 네덜란드를 견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네덜란드-영국간 3차례 전쟁(영국 승)으로 점차 패권이 영국으로 옮겨감
나폴레옹의 대륙봉쇄 (19세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패권을 위해 영국에서 들어오는 상품에 관세를 부과, 이후 무역거래 금지하는 대륙봉쇄 조치를 실시 유럽 각국의 불만 고조 → 밀무역 성행, 러시아의 봉쇄령 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랑스-러시아 전쟁 → 나폴레옹 패배 자유로운 무역을 막은 프랑스가 선진기술을 배울 기회를 놓쳐 산업발전이 지체
美 남북전쟁 (186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부의 경제력 역전기를 맞아 북부(보호주의 관세)와 남부(노예노동력)간의 이해관계 대립 북부는 남부의 1.9만km 해상을 봉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화 생산지역이 미국(남부) 외 인도·이집트 등으로 확대, 흥년에 미국(북부)로부터 밀을 수입해야 하는 영국은 북부를 지원
아편무역 (1760~18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국은 차로 인한 교역적자를 삼각무역(면직물→인도(아편)→청나라(은))으로 해소 미국의 중국인 배척법 → 중국의 미국제품 불매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인들의 불매운동으로 인해 서방은 중국에 대한 과도한 조치를 스스로 억제하게 됨
스무트-홀리 관세법(19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의 수입관세 인상 → 미국의 대공황 위기를 유럽에 전가 → 미국경제와 세계경제를 더 깊은 심연으로 빠져들게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은 상황 타개를 위해 1934년 호혜무역 협정을 공포 → 자유무역협정 체결
미국의 은구매법 (19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의 은구매법으로 인해 국제시장에서 은 가격 상승 중국내 은이 빠르게 외부로 유출 → 중국의 은본위제 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 은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겪음 일본은 중국에서 빼낸 은을 런던 등지에 팔아 국력을 키움
1·2차 세계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대전에서 영국은 독일에 대해 관세전쟁, 덤핑전쟁 등 노골적인 무역전쟁을 실시 + 경제봉쇄, 전략적 사재기 등 독일은 무제한 잠수함전을 통해 영국의 무역을 봉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제한 잠수함전으로 인해 미국이 참전하게 된 것은 2차대전에서 독일의 결정적인 패인으로 작용
일본의 덤핑전쟁 (1929~19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은 중국에 대해 전략물자 사재기, 덤핑을 통한 저가공세, 무역봉쇄, 화폐전쟁, 위조지폐 유통 등을 감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 경제에 인플레이션 촉발 일본은 전쟁자금을 조달
한국전쟁을 통한 미중무역전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전쟁 발발 후, 미국은 동맹국과 함께 석유관련제품(1B 항목)의 對중국 수출을 봉쇄 중국은 중국내 미국 예금을 동결하고 기업을 통제, 소련과의 경제협력을 대폭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면서도 어느 정도 여지를 남겨둠(중국-소련간 분열을 도모, 중국에 대한 영향력 발휘를 희망)
냉전시대의 미-소 무역전쟁 ('70~'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72과 '77년 미국은 식량을 무기화하였으나 소련의 위장 전략(풍년으로 속임)에 속아 국제 곡물가격의 폭락을 겪음 소련은 석유 수출과 식량 수입의 두 축으로 국가를 운영 → '70년대 오일쇼크 시기 석유를 수출해 번 돈으로 성장 '80년대 미국은 사우디에 역오일쇼크를 제안(사우디에 첨단 무기를 판매하고 중동에서의 안전을 보장) → 석유가격 하락으로 소련의 재정과 생활수준에 심각한 위기 초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련의 석유에 의존한 변형은 경제체제의 비효율성과 경직성을 강화 '89년부터 2년간 전세계적인 흉년 → 670억달러 부채에 시달리던 소련은 추가로 빚을 질 수 없어 결국 식량수입이 전면 중단 → 소련인에게 재앙 → '91년 미국은 전략비축용 석유를 풀고 사우디는 석유 생산량 확대 → 소련 민심의 동요
미-일 무역전쟁 ('60~'8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의 방직('50년대), 철강('60년대), 가전('70년대), 자동차('80년대)이 미국시장을 석권 → 미국은 수출자율규제 등으로 일본 산업을 견제 → 그러나 일본제품은 여전히 승승장구 '85년 플라자 합의를 도출 + 보호무역 301조 탄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에 경제·군사·외교적으로 의존한 일본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양보를 선택 일본의 수출 부진, 반도체산업의 몰락,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으로 버블 발생, '90년대 경기 침체 → '잃어버린 10년'
바나나와 철강을 두고 다툰 미-EU (1993~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럽은 구식민지 국가에서 생산된 바나나와 여타국가에서 생산된 바나나를 차별 → 미국 바나나 기업에 피해 → 미국은 EU를 WTO에 제소하고 보복조치를 채택 미국은 철강에 대한 셰이프가드 발동 → EU는 미국을 WTO에 제소 → EU의 승리(미국내 수요업계 등이 EU를 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의 패권이 쇠퇴하면 미국은 점차 보호 무역을 추구할 것 → (생각해보기) 최근 국제적인 무역분쟁이 빈번해지고 있는데, 오늘날 미국의 패권은 약화되고 있는가? 앞으로 국제분쟁은 더 빈번해질 것인가?



【참고】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소개 및 활용 방법

●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Korea Center for GVC) 출범 (‘22.2.9)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협회, KOTRA 등이 중심이 되어 출범한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는 글로벌 공급망 이슈에 상시·전문적 분석 역량을 갖춘 공급망 분석 전문기관으로서,
 - ① 정부부처, 무역관, 업종별 협회 및 주요기업 등으로부터 수집된 주요 산업 관련 국내외 동향 심층 분석
 - ② 공급망 관련 이상징후 신속 전파 및 대응조치를 제언하는 등 국가 조기경보시스템(EWS) 운용 지원
 - ③ 정부와 민간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및 전략 수립을 지원
- ‘분석센터’는 종합전략실(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 산업분석실(무역협회가 담당), 공급망 모니터링실(KOTRA가 담당) 등 3개 실을 두고, 3개 기관의 전문인력에 더하여, 업종별 협·단체의 파견 인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

● ‘글로벌 공급망 유관기관 협력회의’ 개최 (‘22.3.21)

-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협력기관 확대(기존 12개 → 약 30개) 및 현장 중심의 공급망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개편 전(12)	개편 후(29)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부장 수급대응 지원센터 (2)	산업통상자원부 소부장 수급대응 지원센터 (2)
산업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로봇산업협회 (6)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로봇산업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한국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전지산업협회,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16)
무역 통상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략물자관리원 (3)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략물자관리원, 한국수입협회 (4)
에너지		한국가스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석유공사 (3)
연구 기관	국제무역통상연구원 (1)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4)

●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활용 방법 (종합 문의 : gvc_research@kita.or.kr)

- (구독 문의)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대외발간물) 3.3(목)부터 매주 1회(목요일) 발간 중
 - 산업통상자원부(정책·정보·간행물), 한국무역협회(분석센터), 코트라(해외시장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한국무역협회와 KOTRA가 뉴스레터 형태로 메일 송부 중, SNS로 쉽게 전파·확산이 가능한 PDF로 작성
 - ☞ **메일 구독(수신) 신청** : <https://forms.gle/twC4m3uNTm14t2sR8>
 - 카카오톡 > 오픈채팅방 >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검색 > 프로필 설정 > 대화방 참여
 -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 <https://open.kakao.com/o/gmGL3Obe>
- (품목 문의) 공급망 분석이 필요한 품목에 대한 문의 및 제안 → 중요성·파급력 등 검토하여 분석대상 선정
- (필자 참여) 본인의 지식·경험을 활용하여 필자로 참여 가능 (단순 정보제공 형태로 참여도 가능)

글로벌 경제지표('22. 6. 29. 수)

[환율]

	'20.12.31	'21.12.31	'22.5.31	'22.6.24	'22.6.27	'22.6.28	전일비	'21말비
₩/U\$	1,186.30	1,188.80	1,237.20	1,298.20	1,286.50	1,283.40	-0.24%	+7.96%
선물환(NDF,1월물)	1,186.30	1,190.00	1,237.40	1,298.00	1,286.00	1,284.90	-0.09%	+7.97%
₩/CNY	166.04	186.51	185.67	195.59	192.36	191.96	-0.21%	+2.92%
₩/Y100	1,051.19	1,032.48	967.77	962.91	952.54	947.44	-0.54%	-8.24%
Y/U\$	103.34	115.14	127.84	134.82	135.06	135.46	+0.30%	+17.65%
U\$/EUR	1.2279	1.1318	1.0741	1.0536	1.0558	1.0593	+0.33%	-6.41%
CNY/U\$	6.5305	6.3681	6.6520	6.6964	6.6866	6.6863	-0.00%	+5.00%

* '21년 평균 환율: (₩/U\$) 1144.6원, (₩/¥100) 1041.9원

[유가/원자재] (원유 \$/배럴, 철광석.비철금속 \$/톤)

구 분	'21년 최저(해당일)	'21.12.31	'22.6.27 (전일)	'22.6.28	'22.6.28			
					전일(6.20)비	'21년최저비	'21년말비	
원유(두바이)	50.05 (1.5일)	77.12	110.00	113.20	▲3.2 +2.9%	▲63.2 +126.2%	▲36.1 +46.8%	
철광석	87.27 (11.18일)	120.75	119.60	125.00	▲5.4 +4.5%	▲37.7 +43.2%	▲4.3 +3.5%	
비철금속	구리	7,755.50 (2.2일)	9,692.00	8,353.00	8,502.00	▲149.0 +1.8%	▲746.5 +9.6%	▼1190.0 -12.3%
	알루미늄	1,951.50 (1.19일)	2,806.00	2,453.00	2,500.00	▲47.0 +1.9%	▲548.5 +28.1%	▼306.0 -10.9%
	니켈	15,907.00 (3.9일)	20,925.00	23,200.00	23,900.00	▲700.0 +3.0%	▲7993.0 +50.2%	▲2975.0 +14.2%

[반도체]

	'20	'21	'22.3	'22.4	'22.5	6.23	6.24	6.27	6월(~27)
D램(8G) 현물가(\$, 기간평균)	3.07	3.42	3.75	3.47	3.39	3.34	3.31	3.30	3.39
(YoY)	-21.9%	+8.0%	-11.0%	-25.1%	-23.9%	-26.9	-28.1	-28.1	-25.0
낸드(128G) 현물가(\$, 기간평균)	5.71	7.45	8.0	8.2	8.28	7.76	7.74	7.55	8.11
(YoY)	+7.0%	+32.8%	+33.9%	+34.5%	+30.2%	+16.9	+16.4	+13.4	+24.6

[SCFI(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

구 분	'21.12.31	'22.6.2	'22.6.10	'22.6.17	'22.6.24	'22.6.24	
						전주(6.17)비	'21년말비
운임지수	5046.66	4208.01	4233.31	4221.96	4216.13	-01.%	-16.5%

[BDI(Baltic Dry Index, 발틱운임지수)]

구 분	'21.12.24	'22.5.31	'22.6.22	'22.6.23	'22.6.24	'22.6.27	'22.6.27	
							전일(6.24)비	'21년말비
BDI	2217	2566	2349	2354	2331	2295	-1.5%	+3.5%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Value Chain]

문의

산업분석실 (한국무역협회) : gvc_research@kita.or.kr

공급망 모니터링실 (KOTRA) : gvc_monitoring@kotra.or.kr

※ 메일 구독(수신) 신청: <https://forms.gle/twC4m3uNTm14t2sR8>

협력기관

